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질문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6848 오순절. 계시를 주는 이유.....	3
7767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진리.....	5
8341 영적인 지식으로 인도.....	6
8034 깨달음의 중요성.....	8
8025 지식과 깨달음의 차이.....	9
7816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	11
0750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	12
8275 하나님은 헤아려 볼 수 없다.....	12
8622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	14
8265 하느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15
7828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낸 영이다.....	17
8541 예수 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18
5744 하나님이 이성의 사람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19
7624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	21
4541 하나님의 존재.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심장과 이성.....	22
7665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23
8035 하나님에 대한 잘못 된 관점. 잘못 된 가르침.....	24
4484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25
7834 맹목적인 믿음은 가치가 없다.....	28
7629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 하는 것이 진리를 얻는 것을 보장한다.....	29
7797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31
7781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역사.....	32
8228 영들을 분별하라.....	34
8254 영의 역사에 대한 이해.....	35
7597 생명력이 있는 믿음. 생명으로 깨어남.....	37
7533 이 땅의 삶이 헛되게 되는 일.....	38
4932 하나님의 뜻: 사랑의 계명의 성취.....	39

오순절. 계시를 주는 이유.

B.D. No. 6848

1957년 6월 9일

내 음성을 듣는 너희 모두에게 나는 나를 사랑과 지혜와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해주시기를 원한다. 내 계시는 단지 열린 심장과 내가 내 음성을 들려주면, 자원하여 내 음성을

들으려는 귀를 필요로 하고 내 계시는 항상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사랑을 약속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말씀을 듣는 너희 모두의 심장을 감동시키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성장하도록 돕는 어떤 것인 모든 존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 가기 위해 필요한 빛과 힘을 선물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너희에게 내 성품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과 지혜와 전능의 하나님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를 깨달았다면, 너희가 내 안의 너희의 아버지를 보고 이제 내 자녀로서 나를 추구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사랑과 지혜와 전능함을 믿는다면, 너희는 또한 겸손과 사랑으로 나에게 순종할 것이고 너희를 아직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저항을 포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계시한다.

너희 모두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어떤 저항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의 저항이 꺾이도록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내 말씀을 듣도록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음성이 너희에게 들리면, 너희는 내 사랑을 느껴야 하고 힘의 흐름에 감동을 받아야 하고 이런 일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가운데 머문다면, 힘의 흐름은 즉시 효력을 잃는 반면에 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힘의 흐름의 효력이 계속 증가한다.

아직 어두운 영을 가진 너희 모두에게 빛을 전하기 원하고 나는 너희를 준비시켜 빛의 영역이 이제 너희를 받을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단지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을 행하려는 결심을 하면, 비로소 가능하다. 너희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너희는 내면에서 사랑을 행하라는 촉구를 받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너희에게 나를 계시한다.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너희가 아직 그를 믿는다면, 그를 너희가 그의 권세 아래 있어야만 하고 너희를 파괴하거나 또는 정죄할 수 있는 한 권세로서 두려워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서 받기 원하는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단지 사랑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두려움이 형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하고 계속해서 너희의 사랑을 구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온전함을 깨닫고 그의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확신하는 존재를 단지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할 수 있게 되면, 너희는 곧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무한하고 내 지혜가 탁월하고 내 권세가 무한하다는 확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나와 영원히 연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장으로 나에게 자신을 내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의 말을 항상 또 다시 듣고 심장으로 들어가기를 구할 것이다. 자원하여 나에게 자신을 여는 사람을 나는 내 음성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그를 위해 축복의 문을 열어 주기를 원한다. 내 음성은 그에게 빛을 주고 이 빛이 그에게 비추면, 모든 어두움이 그를 떠날 것이다. 그는 나를 영원의 빛으로 깨달을 것이고 그는 모든 긴밀함으로 나를 사랑할 것이고 영원히 나에게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내 영을 통해 너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나 자신이 이 말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사람도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너희는 단지 어떻게 너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

영원한 진리 자체인 나로부터 나온,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건드릴 수 없는 진리가 있다. 이런 진리의 근원으로 너희 자신이 다가가야만 한다. 진리의 근원인 나 자신에게서 진리를 얻으려고 해야만 한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나는 모든 연관 관계를 안다. 나에게서는 어떤 것도 숨겨진 것이 없다. 나는 내 피조물인 너희가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처럼 같은 빛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 너희가 누구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는지를 알고 너희가 너희의 목표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웃들이 이런 지식을 나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이에 관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들이 이성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것들을 이웃에게 확신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의 생각을 깨우쳐 달라고 나에게 구하지 않는 동안에는 단지 이성 만이 일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이성의 생각의 결과는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올바르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진리를 안다.

나는 내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내 말이 진리이고 진리로 남을 것임을 너희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런 내 말에 아주 적게 주의를 기울인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통해 어떤 큰 약속을 해줬는지 깨닫지를 못한다. 왜냐면 그들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려는 소원이 없고 이웃들이 자신에게 전하는 모든 것을 생각할 것 없이 진리로 영접하거나 또는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큰 영적인 퇴보이다. 왜냐면 영적인 지식은 모든 사람이 소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해야 한다. 이 의지가 그를 이미 진리 가까이로 인도한다. 왜냐면 나는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개입해 그들의 생각을 인도하고 그들이 구하기 시작하고 올바른 원천을 향한 길을 택하게 한다.

나 자신이 그에게 직접 진리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가 이제 내 일꾼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내 일꾼을 통해 제공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진리를 나누어 주기 위해 단지 진리를 향한 갈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단지 그들의 의지가 선하면, 그들이 내 영을 통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 자신이 이제 내 영을 통해 그에게 전해진 것의 진리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한 말을 생각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위로자를 진리의 영을 보낼 것이다. 이 영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에서 인도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영을 통해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사람들에게 했던 같은 말을 나 자신으로부터 듣게 될 것이라는 시험석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너희는 누가 너희에게 말했는지 깨달을 수 있다. 너희는 이제 그의 약속을 실현시키고 그의 영을 통해 너희를 가르치는 분이 바로 나 자신임을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다.

너희는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한 나는 말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모든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이 말은 비록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런 내 말들을 믿으면, 너희는 항상 더욱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말씀대로 살고 너희가 단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나타나는 효과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말을 통해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설교 되는 너희에게 올바른 빛을 주게 될 사랑의 효과를 체험할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깨달음에서 성장하고 너희가 잃었던 지식에 다시 도달하고 너희가 전적으로 모두 진리 안에 서게 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를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진리 자신과 너희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지식으로 인도.

B.D. No. 8341

1962년 11월 28일

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전혀 지식이 없지만 그러나 올바른 설명을 영접하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설명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현재 너희의 상태처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사람에게 있는 부족한 점들을 깨달을 수 있고. 이에 관해 생각해보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인류를 창조하였을까 하는 의심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 스스로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볼 수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스스로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한 능력이 역사했어야만 한다. 너희가 보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 창조주는 최고로 온전하다. 그의 온전함에 관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 사람들을 현재 너희가 처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너희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최고로 온전하게 그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다. 너희는 최고의 온전한 가운데 생각할 능력을 가진 존재가 가진 창조능력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온전하게 남지 않았다.

왜냐면 너희는 모든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온전함을 버리고 반대로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반대로 되었다. 너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 했다. 너희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불행한 피조물이 되었다. 왜냐면 축복에 하나님의 제한이 없는 사랑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끝이 없다. 내 사랑은 너희가 자유의지로 추구했던 깊은 곳까지 너희를 뒤 따라 갔다. 내 사랑은 언젠가 너희가 귀환하게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너희를 불행한 상태에서 놔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가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높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게 너희가 어두움의 나라에서 다시 빛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너희의 한때 가졌던 축복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왜냐면 사랑은 항상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다 갈 때까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돌아오는 아주 짧은 단계가 바로 너희가 이 땅의 인간으로 존재하는 단계이다. 너희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생각하고 느끼고 원할 수 있고 이제 이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이제 너희의 생각과 뜻이 올바르다면, 너의 생각과 뜻은 항상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이다. 사랑이 너희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정할 것이다. 왜냐면 올바른 방향을 향한 의지는 나 자신에 의해 사랑을 행하게 정함 받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고 이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인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의 잘못 된 성품을 한때 모든 온전함 가운데 나로부터 창조 되었던 원래의 성품으로 다시 바꾸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단지 사랑의 삶을 사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너희가 사랑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사랑에 속해야 하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시킨다. 이로써 영원한 사랑이 넘치게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너희는 이제 다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축복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이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게 너희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영의 소리를 통해 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영의 소리는 모든 사람의 심장 안에 단지 사랑을 행함을 통해 불지 피우기만 하면 되는 불씨로써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모든 것을 말해 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항상 새롭게 사랑을 행하게 자극한다.

사랑은 너희의 원래 요소이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남기를 원하면, 사랑해이 너희를 전적으로 모두 채우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을 등한시하면, 너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남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이 시대의 세상에서 너희 주변에 너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세대가 된다. 이 세대는 사랑이 없고 항상 단지 자기를 생각하는 자신 주변에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이웃들을 절대로 영접하지 않는 이기적인 세대이다.

사랑이 부족한 것은 그러나 축복이 부족한 것이다. 이는 영이 어두운 것이고 깨달음이 없는 것이 연약한 상태이고 자유가 없는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나와 하나가 되는 일만이 존재에게 다시 축복을 줄 수 있다. 이런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버렸던 온전함에 다시 도달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원래 요소인 사랑으로 다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너희는 나와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

다. 너희는 스스로 사랑을 베풀게 되고 제한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지속되는 올바른 생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온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한이 없이 축복될 것이다.

아멘

깨달음의 중요성.

B.D. No. 8034

1961년 11월 6일

내 자녀인 너희에게 나는 항상 또 다시 말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길을 위해 너희에게 능력을 제공하는 내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도달하면,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 있기를 갈망하면, 내가 너희에게 임재함을 너희는 항상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 하면, 내 능력은 너희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만 한다. 너희의 혼이 성장하기 위해 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게 허용하면, 너희는 항상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만 한다. 항상 너의 안에 비추어 지는 빛을 밝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항상 깊은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생각이 선명해지고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진 것을 의미한다.

내 음성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보장한다. 왜냐면 나로부터 너희에게 흘러 들어가는 능력이 역사해야만 하고 증가하는 지혜를 통해 자신을 증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 모두가 빛을 갈망해야 한다. 너희는 영의 어두움을 벗어나려고 하고 영적인 지식이 증가되길 갈망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어떠한 무지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시작하는지 아느냐? 너희의 이성이 일하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이성으로 영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영역은 너희에게 깊은 어두움으로 남는다. 너희가 이에 관해 설명 받기를 원하는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는 모든 영적인 개념을 너희가 해석할 수 없고 선명하지가 않게 된다. 이런 동안에는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단지 세상을 향한 목적만을 가지고 빛이 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너희는 만족하느냐? 이런 빛이 없는 상태는 축복된 상태가 아니다. 너희는 이 상태를 스스로 부족한 것으로 느껴야만 한다. 그리고 내면의 빛을 받기를 추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비로소 부족한 상태가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에 관해 설명을 해주는 지식이 주어지면, 너희는 내면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

너희는 이런 빛을 갈망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나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으면, 내 종을 통해 너희에게 주어지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영적인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해야 한다. 왜냐면 이런 지식이 너희가 육신을 입을 초기에 부족했던, 그러나 켜질 수 있고 너의 심장 안에서 밝게 빛날 수 있는 빛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빛은 영원으로부터 내 일부분으로 너희 안에서 잠을 자고 있고 너희 스스로 사랑을 통해 불지펴야 하는 작은 사랑의 불씨에 비추어 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제 또 한 너희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진리를 쥐야만 한다. 사랑의 삶의 효과로서 너희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깊은 지식이 쥐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의 불이 지혜의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밝게 돼야만 한다. 영적인 어두움은 사라져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연 관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나 자신과 내 역사와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한다. 너희는 스스로 설명해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만 한다. 왜냐면 이제 나 자신이 너희 안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내 의지 안에서 생각하고 행하고 말한다.

깨달음의 정도는 혼의 성장의 결정적이다. 왜냐면 내가 학교 교육하듯이 전달이 된 죽은 지식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단지 깨달음 하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지식을 말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관해 말한다. 이 지혜는 단지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지혜는 단지 영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전해질 수 있고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밝은 빛이 비추어 지게 허용하는 심장이 영접할 수 있다.

단지 사랑이 지혜를 주고 단지 사랑이 지혜를 받는다. 반면에 같은 지식이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은 지식으로 남게 된다. 너의 모든 너희 안에 빛이 비추어 지게 추구해야 한다. 왜냐면 그럴 때 비로소 너희는 다시 원래 초기처럼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축복되기 위해 너희 모두가 도달해야만 하는 밝은 빛의 상태에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이다.

아멘

지식과 깨달음의 차이.

B.D. No. 8025

1961년 10월 24일

깨달음의 정도는 혼의 성숙한 정도와 같다. 너희는 깨달음과 단지 지식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지식은 이성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미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을 통해 지식을 받으면, 이 지식은 진리에 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아직 "깨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너희 자신의 사랑의 정도를 어느 정도 높였을 때 너희가 이런 지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너희 안에서 생명력이 있을 것이다. 이 지식은 이제 너희에게 내적인 빛을 전할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빛을 어두움과 바꿈으로 즉 깨달음을 잃어버림으로 버렸던 상태를 다시 얻는다. 나에 관한 내 성품에 관한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의 목적에 관한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을 위한 내 구원계획에 관한 학교 공부와 같은 지식은 너희에게 충분하지가 않다.

왜냐면 너희의 아직 너희에게 내적인 빛을 너희 안에 내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보장하는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동안에는 모든 것을 너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너희에게 사랑이 없는 동안에 묻혀 있던 신적인 성품이 너희 안에 다시 존재하게 되었다는 징표이다. 깨달음은 빛이다. 축복되게 되기 위해 너희는 이 빛을 얻어야만 한다. 먼저 너희 스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을 갈망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는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럴지라도 너희 안에 알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의 육신을 벗고 저세상의 나라로 들어갈 때 너희는 갑자기 깨달음의 빛으로 충만한다.

영이 깨어난 사람은 지식과 깨달음 사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이성의 지식과 깨달음을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는 올바른 깨달음은 높은 사랑의 정도를 요구하고 높은 사랑의 정도를 증명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깊은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깨달음에 도달하면, 너희 사람들이 행복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깨달음의 상태는 이미 너희가 원래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빛과 사랑으로 전적으로 비추임을 받았던, 인간으로서 너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동안에는 다시 말해 깨어나지 못하는 영으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아직 어두움에 빠지지 않았던 상태가 원래의 상태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아직 내 영이 역사하게 허용하는 선행조건을 성취시켰다는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절대로 깨달음의 빛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이해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지식을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은 너희의 영의 상태를 밝게 해주고 너희에게 모든 연관관계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은 혼이 성숙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일부분인 내 영이다.

왜냐면 올바른 깨달음은 항상 행복하게 해줄 것이 때문이다. 깨달음은 비록 이성이 이런 지식을 영접할지라도 내 영이 아직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모아진 지식과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지식은 혼의 성장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죽은 지식으로 남게 된다. 그러면 이런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단지 경고해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지식이 생명력이 있게 되려면, 이 전에 사랑을 행하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필요하다. 왜냐면 사랑이 사람 안의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영은 그러면 올바른 빛을 밝혀 줄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지식이 깨달음이 된다. 그럴 때 비로소 혼이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는 정도의 성장에 도달한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내면으로부터 사람을 일깨워주고 그에게 모든 영적인 과정에 관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원래의 시작과 마지막 목표에 관해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에 관해 선명한 깨달음을 주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이런 깨달음을 소유하면, 그 자신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는 내 성품을 영원한 내 구원계획을 전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왜냐면 그는 이제 연관 관계를 알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밝고 선명하게 본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다시 그가 축복되었던 자신의 원래 상태에 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다. 그는 모든 감각으로 나와 연합이 되기 위해 추구한다. 그는 이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를 한때 생성되게 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낸 일을 내 영을 통해 너희에게 계시해줄 것이다. 내가 제한된 존재로 창조한 존재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따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 너희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 영이 이미 아기 예수 안에 거했고 그가 태어난 직후에 내 영이 그 안에서 특별한 일을 행했다. 이로써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 안에 내 영이 거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마쳤다. 그러나 예수의 몸은 영화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입자들이 나와 하나가 되었고 내 영이 몸이 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었고 그에게 더 이상 인간적인 요소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인 나 자신이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모든 존재들이 보기를 갈망하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나는 영이고 그러므로 내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너희는 나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기 원하고 나와 접촉하기를 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만 하고 그와 단 둘의 대화를 나눠야만 하고 너희는 그 자신을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따로 기도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인간 예수 안에 내 아들이었던 혼이 거했다. 이 혼은 내가 창조한 최고로 온전한 존재였고 영들의 큰 타락이 일어날 때 나와 함께 머물렀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영원한 아버지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러나 이로써 분리된 두 존재가 아니라 단지 한 하나님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 원래 존재인 신적인 영이 인간의 겉형체를 전적으로 모두 채워주었고 동시에 이 형체를 영화시켰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신적인 영이었고 이 영이 무한의 세계를 향해 발산되었고 단지 존재들에게 보이는 형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이로써 존재들이 상상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을 이런 존재와 연결시키기 위해 이런 존재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영들의 타락한 원죄는 그들이 자원하여 나를 떠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면서 그들에게 자원하여 나와 연결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와 나는 하나이고 그를 부르는 사람은 또한 나 자신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를 보는 사람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했고 존재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존재할 나 자신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너희가 너희의 주변과 위에 보이는 모든 창조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너희에게 들 때에 이 말을 심장에 새기라. 그래서 내 권세가 모든 존재를 생성시키는 데 충분하다면, 이런 창조의 의지에 대항하여 파괴하려는 의지의 힘은 어떤 종류의 힘이 되어야만 하느냐? 그러면 두번째 신성이 내 옆에서 역사해야만 하고, 그의 힘의 표현이 나의 역사에 대항해서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

이제 신성을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로 많은 신들을 신성 곁에 둘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의 진정한 신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 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를 믿어야만 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그에게 빛이 임할 것이고, 그는 이 빛 가운데 우주의 통치자로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어떤 반대의 세력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의 표면의 물질적 변형 만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다. 이로써 내가 사람들의 심장에 넣어준 창조하려는 충동이 일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만 하게 될 것이고, 항상 창조주의 전능함과 자연의 세력의 역사에 의존해야만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연의 세력에 대항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능한 창조주의 뜻을 헤아려보는 일보다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나의 모든 원초적 힘을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가 나를 분석하는 일이 성공할 가능성은 더 적다. 다시 말해 나의 존재와 역사를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게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영이었고, 영이고, 영으로 항상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 우주가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나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들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내 아래에 있다. 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고,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영이다.

아멘

하나님은 헤아려 볼 수 없다.

나 자신을 헤아려 보는 것은 내 피조물인 너희에게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 자녀로서 최고의 완성에 도달해 내 옆에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을지라도 너희는 내 영원한 창조의 능력에 작품이다. 그러나 나는 소진되지 않는 제한이 없는 쉬지 않고 능력의 흐름을 무한의 세계에 발산해주고 있는 능력의 근원이다.

그러나 나는 한 존재이다. 다시 말해 가장 최고의 지혜로 생각하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행복하게 해주는 영이다. 나는 항상 새로운 창조물들을 생성되게 하는 생각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능력은 생명이고 계속하여 생명을 생성되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로 최고의 완성에 도달해 너희가 내 자녀로서 내 옆에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으면 너희는 실제 가장 깊은 지혜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측량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해주는 너희 스스로 창조적으로 너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빛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항상 이런 능력이 영원한 원천으로부터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이 원천 자체는 너희가 헤아려 볼 수 없고 헤아려 볼 수 없게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계속하여 제공을 받는다는 의식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갈망하게 될 것이고 나를 항상 너희 가까이에 느낄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비밀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영원으로부터 존재하고 영원히 영원까지 존재하게 될 존재를 남김 없이 헤아려 보는 것은 창조된 존재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조된 존재는 단지 내 사랑의 불의 대양에서 흘러나온 단지 작은 불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된 존재가 영원한 사랑의 힘인 나로부터 제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존재가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존재가 계속하여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와 단 둘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얘기하고 나와 가장 축복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축복을 계속하여 높이고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을 항상 증가하게 만든다.

사랑은 축복이다. 사랑은 빛이다. 사랑은 능력이다. 사랑은 모든 존재 스스로를 하나님께 해주는 신적인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항상 높은 완성을 선사해주기 때문이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 바로 나로부터 피조물로 발산되어 나온 존재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내 자녀가 되는 온전한 상태에 도달했으면 단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내 피조물들에게 항상 또 다시 마련해주는 예측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는 나를 영원히 헤아려 볼 수 없음을 안다. 그럴지라도 그는 쉬지 않고 나를 향해 추구한다. 그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축복을 느낀다. 그는 내 응답해주는 사랑에서 그의 행복을 찾는다. 너의 사람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영원이라는 개념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이런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그가 창조한 모든 존재를 무한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줘야 한다. 이런 지식의 너희 자신에게 단지 쉬지 않고 너희의 완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격려가 되어야 한다.

왜냐면 이런 완성은 너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내 피조물인 너희에게 낮아져 다가가서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도달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게 남는다는 것이 그러나 내가 가장 깊은 사랑으로 모든 각각의 피조물들을 감싸고 나에게 인도하며 너희의 사랑을 얻기 위해 왜냐면 단지 사랑이 나와 연결이 되게 하고 너희를 언젠가 끝 없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이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 내 성품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함을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남을 것이다.

가장 온전한 존재가 무한한 가운데 가장 큰 영이 영원한 능력과 빛의 원천이 스스로 자신의 피조물인 너희들과 연결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가장 작은 자가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돕기 위해 가장 작은 자에게 자신을 낮춘다. 그의 사랑은 절대로 줄어 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제한이 없고 이런 사랑으로부터 한때 생성되어 나온 모든 것을 축복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

B.D. No. 8622

1963년 9월 21일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내 존재를 영원히 헤아려 볼 수 없음을 믿으라. 내가 본래 무엇이었는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없다. 왜냐면 너희의 생각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제한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만드러낸 영은 무한하다. 이 영이 자체적으로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없다.

왜냐면 그는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특별히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면, 즉 생각하는 의지를 가지면 하나 형체로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어떤 형체로 상상할 수 없다. 나는 제한이 없는 능력이고 제한이 없이 역사를 한다. 이런 능력이 모든 우주 가운데 충만하다. 이 능력은 모든 물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창조물에 역사할 수 있다. 이 능력은 항상 영원히 질서의 법칙 아래서 역사한다.

왜냐면 생각하는 의지가 이런 영적인 능력을 사랑과 지혜 안에서 계획대로 운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하는 의지”가 너희에게 너희가 존재를 상상할 권한을 준다. 너희는 단지 이 존재에게 형체를 부여하지 말고 너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영적인 창조물이 내 능력으로 내 영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생각으로 그와 연결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 존재, 내 영, 내 사랑, 내 능력, 이 모든 것은 같은 것이고 모든 것을 채우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다. 영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존재이다. 왜냐면 생각하는 의지가 어떻게 사랑이 능력이 영이 나타낼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의지가 내 모든 사역하고 역사하는 것을 정한다. 셀 수 없이 많은 불꽃 안에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을 지라도 모든 불씨는 다시 나와 똑 같다. 즉 나와 같은 성품을 가진 영이고 단지 가장 작게 된 것이고 그럴지라도 강력하다.

왜냐면 이는 영원한 하나님 자신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만약에 내 사랑의 힘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람들은 나 자신을 그와 똑같이 상상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들 모두가 내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제한이 있는 존재이다. 너희는 내 일부분이고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동안에는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다시 온전하게 되어라. 그러면 너희는 비록 내가 내 가장 깊은 존재로써 헤아릴 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지라도 신성에 대한 개념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인간으로써 너희가 행하는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이 자주 오류에 빠지게 하는 제한이 있는 기준을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이다. 다시 말해 너희의 인간적인 생

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나 존재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생성시킨 모든 것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써 생각하고 의지하는 권세를 유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존재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권세와 연결시켜야 한다. 왜냐면 이런 연결, 연합이 비로소 너희가 너희의 원래 입자가 똑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만약에 너희에게 이 권세가 말하면, 그는 너희의 곁형체인 육체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형체 안에 있는 너희가 신적인 형상으로 표현하는 나로부터 나온 내 일부인 영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한때 이 영을 거절했었고 다시 인간으로써 존재하기 위해 아주 작은 불씨로써 너희 안에 넣어 주었다. 또는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에 말한다. 나는 나 자신에 속한 것에게 단지 나 자신의 불씨로 비추어 준 것에게 너희의 인간적인 형체 안 거하는 것에게 말한다. 이는 다시 나 자신이 내 피조물인 너희 안에서 나를 다시 찾기를 원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나 나와 떨어질 수 없게 남는다.

왜냐면 내 영은 분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사랑의 힘이 너희가 존재하는 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소멸될 수 없다. 왜냐면 너희는 나로부터 반출된 영원한 법칙에 따라 능력의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랑의 힘이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된 상태에서 비로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제한 아래 좁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왜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내 영이 내 사랑이 너희를 전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나도 너희에게 가장 밝은 빛이 너희 안에 있게 비추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너희의 성장 정도가 허용하는 한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항상 많은 빛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언젠가는 완성에 도달하게 한다.

아멘

하느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B.D. No. 8265

1962년 9월 6일

너희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절대로 증명할 수 없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강요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유의지로 빛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일은 가능하다. 너희는 단지 생각해보기만 하면 된다.

왜냐면 너희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에게 증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우선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하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나 모든 창조물이 나타내는 능력을 인정해야만 한다.

즉 이 능력을 너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법칙성도 너희가 마찬가지로 부인할 수 없다. 너희들 주변에 있는 창조작품에 부여된 합당한 목적들도 마찬가지로 의지에 의해 인도받는 능력을 증명한다. 이 능력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

이 땅에 너희의 목표는 너희가 이런 생각하는 존재와 연결을 이루는 것이다. 이 연결을 이루지 못하면, 너희가 나를 깨닫는 능력으로 여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한 능력을 부르지 않고 이 능력과 너희를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진리를 헤아려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나는 너희에게 나를 본질적인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한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인간으로써 가진 너희의 생명을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무관심하면 너희에게 진지한 의지가 부족하다.

너희는 절대로 내적인 선명함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너희에게 인간으로써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의식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같은 존재로부터 단지 너희들과는 다르게 가장 최고의 온전한 가운데 있는 그러나 자신을 의식하고 생각할 능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 사랑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권세로 역사하는 존재로부터 생성되어 나와야만 한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를 한 능력에 의한 우연한 작품이라고 여길 수 없다.

왜냐면 능력이 내 의지에 의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 능력은 항상 요소적으로 역사하고 그러므로 파괴적으로 그러나 절대로 생성하는 역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의 정해진 목적성과 법칙성이 일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존재를 너희에게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들이 이 존재를 상상할 수 없고 이 존재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잡을 수 없을지라도 창조가 전능한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고 있다. 사람은 깊은 곳으로 타락해 모든 빛을 빼앗기게 된 결과로써 전적으로 영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나로부터 아직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무한한 가운데 가장 최고로 온전한 영으로 깨닫게 하면, 그의 나에 대한 저항을 할 것이다. 그는 한때 그가 내 사랑의 빛을 거절해 영이 어두워진 것처럼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두움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해야만 한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출처에 대해 선명함을 자신 안에 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는 올바르게 행하기를 자원해야 한다. 그에게 빛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을 가르치게 허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어두워진 영은 이런 의지가 없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자신 안에 그가 원하지 않는 죄의식을 불러 일으킬 거라는 감정으로부터 모든 해명을 거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단지 사람들에게 권세가 충만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이 사람 스스로 어떤 것을 체험하려고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항상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고 이런 사람에게 힘을 소모해서 안 된다.

왜냐면 그가 언젠가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지는 그의 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증거가 없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이미 나와 연결을 시키고 진리를 향한 갈망이 그에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생각은 이미 인도를 받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섬기게 자신에게 맡겨진 빛의 존재로부터 생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의 저항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 편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가 도움이 된다. 이 중보 기도는 항상 그의 의지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낸 영이다.

B.D. No. 7828

1961년 2월 17일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좁게 제한된 존재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를 한 형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항상 너희가 마음에 그려보는 것은 잘못 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절대로 최고로 온전한 내 상품에 그러므로 제한이 없는 내 상품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채우고 있고 모든 것에 비추어 주는 영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피조물들이 나를 영원히 헤아려 볼 수 없게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내 피조물들이 최고로 온전하게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을지라도 이 존재는 영원한 빛과 능력의 근원을 볼 수 없는 개인의 존재로서 내 영원한 사랑의 불바다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단지 빛의 불씨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내 모든 충만한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에게 비춰지는 빛 때문에 그들은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 외에는 다른 개념을 가질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 안에서 영원한 무한한 영이 자신을 나타내었다. 그 안에서 너희는 나를 보고 대면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내 사랑과 내 능력으로 생성시킨 내 피조물인 너희를 위해 형체를 부여했다. 모든 무한을 채우고 있는 영원한 영이 형체에게 비추어 너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렇지라도 나는 모든 무한한 가운데 사역하고 역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상품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단지 너희 스스로 아직 제한 가운데 있고 아직 최고의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한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안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개념이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온전함으로부터 아직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의 상태에 합당하게 너희를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최고로 온전함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내 상품을 헤아려 볼 수 없고 헤아려 볼 수 없게 남는다. 내 자녀들이 항상 나를 추구하고 그들의 소원이 항상 성취되는 일을 통해 나에게 의해 항상 행복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영원히 나에게 도달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다.

이는 너희에게 신비로 남을 것이다. 너희가 비로소 빛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 상품은 영원히 헤아려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끝 없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 가까이 있다.

이런 의식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은 계속하여 증가되고 축복의 원인이 된다. 왜냐면 사랑은 항상 성취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제한이 없는 축복을 선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항상 뜨겁게 불타오를 것이다.

왜냐면 비록 내가 형체에 묶여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모든 무한한 세계를 내 빛과 내 능력으로 헤아려 볼 수 없고 헤아려 볼 수 없게 남을 내 성품으로 채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내 자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피조물인 너희는 예수 안에서 나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

왜냐면 내가 나를 영접한 그를 내 형체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한때 인간적이었던 이 형체가 전적으로 영화 되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성장 정도에 도달한 모든 존재에게 볼 수 있게 남는다. 그러므로 그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보면, 내 영원한 영을 보는 것이다.

너희가 그를 보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전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창조한 존재들인 너희를 위해 볼 수 있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끝 없이 총명한 능력과 빛을 소멸되지 않고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내 자녀들과 창조하고 조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축복을 높여 주기 위해 나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나 자신이 그들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내 자녀 가까이에 있다.

아멘

예수 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B.D. No. 8541

1963년 6월 26일

너희가 위험 가운데 있으면 단지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는 것만이 너희에게 긴급하게 필요하다.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너희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위험 가운데 너희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에게 도망치는 것만이 필요하다. 항상 다시 나는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또는 기도를 통해 단지 생각으로 나와 연결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진실로 너희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와 연결이 너희에게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데 너희가 한때 생성되어 나왔던 분에게 다시 돌아 가는데 내 도움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해줄 수는 없다. 너희는 그를 믿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믿으려고 하면, 너희를 주변의 모든 것이 스스로 너희에게 나를 증거하는 증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생각을 통해 이미 나를 믿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단지 너희가 생각이 없이 살기를 단지 세상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너희의 이 땅의 삶 자체가 목적이라고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마치 전파처럼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한다. 왜, 무엇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사는가? 왜냐면 너희가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너희를 그와 연결이 되길 원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영원히 더 이상 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연약함을 버리기 위해 높은 곳을 향한 성장을 보장받기 위해 그를 찾아야만 한다. 너희는 진지하게 나를 추구하려는 의지의 힘을 적게 소유할 것이다. 왜냐면 한때 나를 떠난 죄로 인해 너희는 이렇게 하기에 연약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의지가 강화되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강화 된 의지의 은혜를 구매하기 위해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원죄의 결과로서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너희를 돕기 위해 나 자신이 너희에게 임했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죄를 용서 해주기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구하면, 너희가 예수의 발 아래 너희의 죄짐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 모든 영원까지 하나가 된 아버지에게 돌아 가고자 하는 진지한 의지를 표명하면, 너희가 나에게 이제 귀환하는 것을 가능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세주로 믿으면 너희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러나 나를 모든 충만함으로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인간의 겉형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나 자신이 겉형체로 선택한 인간의 형체 예수는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너희 사람들은 내 의지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그러나 너희는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 갔다. 나와 연결은 단지 사랑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이 연결을 너희는 자유의지로 버렸다. 반면에 사랑인 내 원래 성분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 예수는 사랑으로 비추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자신도 자신의 성분에 의하면 하나님이여야만 한다. 단지 그의 겉형체만이 그가 영화시킬 때까지 자신의 신적인 혼에 속하게 될 때까지 예수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였을 때 어떤 인간적인 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까지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의 나를 깨달은 자는 어두움을 떠난 것이다. 왜냐면 빛 자신이 그를 이제 높은 곳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빛이다. 나는 인간 예수가 전적으로 모두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 예수를 통해 빛을 이 땅에 비추인다.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빛의 비추임을 전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심장을 열어주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너희를 창조하신 분에게 향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너희는 자유롭게 너희로부터 우러나오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 긍휼의 사랑으로 붙잡힘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기 위해 모든 일이 행해질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 깨닫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성의 사람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B.D. No. 5744

1953년 8월 11일

나는 아직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믿기를 원하지 않고, 아직 확신 있게 나를 인정할 수 없고, 이 땅의 내 대변자들이 설명해주기 원하는 지식에 그들의 이성의 지식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원한다. 나는 모든 것을 먼저 증명하기를 원하고, 예리한 이성의 사

고로 헤아려보거나 반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원한다. 그들의 지식은 심장을 죽인다. 더 높은 진리라고 불리는 내용은 세상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이다. 왜냐면 이 땅의 삶에서 믿어야만 한다는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사람의 예리한 이성도 영의 영역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창조물 중에 어떤 범주로 분류하느냐? 너희가 유일하게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반면에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이런 생각할 능력과 생각할 자유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깨닫느냐? 유일하게 이 점으로도 너희는 이미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권세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고, 그가 단지 무한하게 권세가 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 자신은 너희의 생각하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각할 능력을 가진 존재를 생성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창조하지 않은 너희 후손을 증거로 제시할 수 없고, 너희 후손은 기존의 자연의 법칙이 너희에게 준 것이고, 자연의 법칙이 너희에게 한 입법자를 증명한다.

더 나아가 다음을 생각하라: 자연의 힘에게 생각할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자연의 힘이 생각할 수 있고, 존재의 생물체가 가장 큰 지혜를 증거하는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느냐? 이런 자연의 힘 자체를 최고의 지혜로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고 그러므로 창조하고 목적에 합당한 형체를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존재로 깨닫고, 인정해야만 하지 않느냐? 창조의 작품이 가장 예리한 이성을 가진 사상가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너희가 존재가 "존재하지 않음" 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 힘이 사람의 의지 안에서 힘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 너희가 단지 근사하게라도 한 힘이 질서에 합당하게 창조물들을 생성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한 힘이 멈출 수 없게 활동하게 하면, 너희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창조물의 합목적성과 질서 때문에 감탄할 수 있는 창조물을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이성 덕택에 너희는 이미 너희가 영원한 창조주로 여겨야만 하는 가장 높은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너희가 이런 존재를 부인하기 원하고, 너희가 그의 창조물에서 너희가 볼 수 있는 그의 역사를 단지 인도받지 않은 힘의 효력으로 설명하고, 이로써 너희가 아직 의식하지 못하고 눈이 먼 상태로 역사하는 어떤 존재가 창조물을 생성되게 한 기원이라고 여기기를 원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설명은 진실로 올바르게 사용한 이성의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너희가 구하는 반항적인 도피처이다. 왜냐면 단지 설명하려는 작은 의지가 있는 사람은 먼저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후에 사람이 이미 창조물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존재하는 힘을 거부하기보다는 반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신성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일의 결과가 너희의 혼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안다면, 너희는 또한 내가 왜 너희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왜 너희가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자극해주기를 원하는 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를 통해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잘못된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너희가 단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너희가 이성으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필요하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는 일이 실제 이 땅

의 삶의 목적과 목표이다. 이 땅은 단지 인간이 한때 자유의지로 떠난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할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런 일은 너희가 아직 나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의지로 새롭게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일은 저세상에서 너희에게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하거나 또는 이 땅의 종말이 임하면, 물질 안으로 새로운 파문을 받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무 늦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세상 지식이 아주 클지라도,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이제 도울 수 있기 위해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분에게 너희 자신을 맡기면, 너희는 훨씬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아멘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

B.D. No. 7624

1960년 6월 17일

너희가 단지 자원하면, 내가 너희가 쉽게 믿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에 대한 내 역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주어 너희가 나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므로 너희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창조물을 통해 너희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증명한다.

나는 위로부터 너희에게 들려주는 믿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내 음성을 통해 너희에게 나를 증명한다. 왜냐면 그가 믿으려는 의지가 가장 먼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선한 의지가 그의 눈과 귀와 심장을 열게 한다. 그는 내 존재에 대한 증거위에 증거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나를 계시하고 내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가 나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믿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고 단지 그에게 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의지가 아직 전적으로 나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왜냐면 신성을 부인하는 일은 사람들이 아직 전적으로 원죄의 굴레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가 한때 나를 대적하는 저항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그러나 그의 의지가 강제적으로 꺾일 수 없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항상 또 다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나 자신을 계시하여 그가 만약에 자신의 의지를 변화시키면, 언제든지 나를 깨달을 수 있게 하면서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쉬지 않고 그의 의지를 얻으려고 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왜냐면 그는 내 창조의 작품 가운데 있고 그가 단지 자연의 작품에 대해 생각해보기만 하면 되는 자연의 작품이 그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하기 때문이다. 나를 떠난 의지가 항상 영원한 창조주의 존재보다 창조의 기적에 대한 다른 설명을 구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의지가 뒤로 물러서면, 그 안에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그냥 모든 것 위에 있는 근원자이며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가능하게 여길 수 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역사해 그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종말 전에 마지막 때에 믿음은 항상 더욱 사라질 것이다. 강요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지 때문에 내 계시들은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라도 나는 위로부터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 말은 만약에 그가 자신 안에서 내 말이 역사하게 하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내 말을 듣거나 또는 읽고 감동을 느끼는 일이 비록 적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모든 혼이 중요하다. 나는 모든 각각의 혼을 얻기 위한 일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협에 빠지게 하면서 운명적으로 그의 길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면 그는 이 가운데 넘치는 권세를 가진 분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그의 의지를 전적으로 자유함 가운데 놔둬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단지 그의 의지에 역사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내 사랑과 긍휼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시도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심장과 이성.

B.D. No. 4541

1949년 1월 15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신성을 믿는 일은 자주 어렵다. 왜냐면 그의 이성이 전적으로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지식을 통해, 다른 결론을 내리도록 강요받고 때문이다. 이 땅의 발전 과정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이미 잘못된 생각으로 이끈다. 그러면 영원한 창조주를 인정하기 어렵다.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 실제 창조주를 깨달아야만 하지만, 그렇지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지 않는다. 과학은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과학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학은 잘못된 관점 위에 세워진다. 결국 영원한 신성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신성을 찾는 일이 아주 어렵다.

모든 연구는 비록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적인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연구는 빠르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확신을 가진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은 자신의 날카로운 이성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성을 제외시켜야만 하고, 심장의 느낌에 몰두해야만 한다. 그는 모든 과학을 걸어로 치우고, 어린 아이와 같이 내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그의 느낌을 통해 생각하거나 또는 원하는 것을 진리로 영접해야만 한다. 그는 어느 정도 깨어난 눈으로 꿈을 꺾어야만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신성이, 사람이 신성이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아른거리게 될 것이다.

사람의 가장 깊은 소원이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가진 상태로 머문다. 단지 세상의 이성이 가장 깊은 소원을 없애려고 한다. 왜냐면 신성을 몰아내려는 그러나 사람의 심장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약하게 사람의 이성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자가 이성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심장을 통해 표현한다. 심장이 더 강하여 이성을 심장의 편으로 끌어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는 이성을 통해 표현한다. 그러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심장과 이성은 영원한 신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과학은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다. 과학은 진실로 잘못된 결론이 아닌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다. 연구가 한 분의 신성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면, 이 연구는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이 연구가 어느 영역에 수행되던지 간에 진리에 가까이 다가 갈 것이다. 그러면 과학과 믿음이 더 이상 모순이 되지 않고 단지 서로 간을 채워줄 것이다. 지식이, 존재했던 것과 존재하는 것과 모든 영원에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것 위에 있는, 전능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조화를 이루면, 비로소 지식이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아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B.D. No. 7665

1960년 8월 4일

만약에 사람이 받기 위해 자신을 열면, 이런 모든 사람의 심장으로 내 사랑의 힘이 흘러 간다. 내 사랑의 힘은 영의 불씨에 불이 붙게 하고 불길이 영원한 아버지의 영인 나 자신에게 향하게 역사한다. 이로써 나에게 향하는 길이 열린다. 이 길은 단지 나로부터 내 사랑으로부터 비추임 받으려는 의지에 의해 열린다. 또는 나에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를 믿고 나와 연결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 내 사랑의 힘을 받는다.

그러면 그 자신이 성장한다. 왜냐면 내 능력이 이런 일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고 그 자신을 내 창조주로 깨달아야 한다. 그러할 때 비로소 그 안에 나와 연결을 이루려는 소원이 깨어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을 연다. 그러므로 자신이 내 사랑의 힘의 비추임을 받으려고 한다.

왜냐면 단지 이런 자세가 이런 일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자연의 산물로 여기는 사람은 그러므로 자신을 창조한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연결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랑의 힘의 비추임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사람이 나를 믿는 믿음을 얻게 실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그의 의지에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내 존재를 증명하는 모든 일은 강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기 직접 높은 곳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말하여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만 하고 나를 믿으면, 내 말도 강제적인 증거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가치가 없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음성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단지 나는 인간의 형체를 사용해 그를 통해 내가 직접 말한다. 그러나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들려주는 음성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모든 사람의 자유에 맡긴다. 항상 자유의지가 결정적이다. 절대로 강제적으로 믿게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의해 가장 깊은 지혜를 알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런 가장 깊은 지혜가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장 깊은 지혜가 사람에게 나 자신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 사람은 내 말을 통해 어떤 지옥의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신을 가진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내 말은 사람의 심장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에게 아주 밝은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비추임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랑이 사랑으로 인도하다. 그러면 심장 안에 빛이 밝혀진다. 이 빛 가운데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두움은 전적으로 물러나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모든 원수의 편에서 항상 또 다시 오는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준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랑의 비추임에 자신이 감동되게 할지는 항상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다.

왜냐면 자신을 여는 일이 자유의지로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고 연결되길 원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이 가장 온전한 존재의 손에서 생성되어 나왔다는 것을 이 존재와 연관을 끊을 수 없음을 믿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나 자신을 깨닫는다. 그러면 그는 나를 구한다. 나는 그가 나를 찾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잘못 된 관점. 잘못 된 가르침.

B.D. No. 8035

1961년 11월 7일

내가 너희에게 분노하며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엄격하고 긍휼이 없는 항상 단지 벌을 주고 심판하고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심판자로 묘사되면, 너희가 내 성품에 관해 얼마나 왜곡 된 관점으로 묘사 받은 것인가? 너희가 이런 하나님은 항상 단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움에서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희는 그의 계명을 단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 관해 이런 관점을 만들게 되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는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이런 목표를 이루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이렇게 소개된 존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지 너희의 사랑과 전적인 신뢰를 얻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자신의 자녀들과 사랑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는 신실한 아버지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얻어야만 한다. 너희가 영원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느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체가 사랑이고 진리이고 권세인 최고로 온전한 존재인 내 성품에 관한 진리가 너희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너희가 잘못을 행했으면 너희에게 벌을 주는 한 분 하나님을 너희는 실제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벌을 주지 않고 항상 단지 너희가 죄악 된 상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너희를 도와준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너희에게 힘과 은혜를 선물한다.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은 존재를 깊은 것으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를 저주하지 않고 항상 단지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 올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스스로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을 내가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타락한 자를 죄를 지은 자를 다시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은 내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절대로 내 끝없는 사랑과 일치할 수 없는 벌을 주는 행위가 아

니다. 너희는 나를 복수하는 별주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가르침에 절대로 믿음을 줄 필요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심판을 아주 큰 잘못 된 가르침으로 거절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절대로 피조물을 저주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깊은 곳을 추구한 것이고 나는 항상 단지 그를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공의를 무효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단지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서 깊은 곳을 향한 존재들에게 축복을 선물할 수 없음을 너희에게 설명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 너희는 항상 단지 자상하고 아주 사랑이 충만한 너희에게 사랑을 선물해 줄 준비가 되어있는 그러나 그의 온전함으로 인해 영원한 질서를 무시하며 역사할 수 없는 아버지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존재에게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 열려 있다. 가장 깊이에 타락한 존재도 단지 나에게 요구하는 손을 벌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 손을 붙잡고 높은 것으로 이끌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과 내 긍휼은 아주 커서 존재가 자유의지로 자신을 나에게 맡길 때 내가 모든 죄를 간과하고 죄를 용서해주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이 죄를 위해 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즉 공의가 요구하는 데로 죄값을 치른 것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내 성품을 모든 진실되게 설명하면, 나에게 향하는 길을 자유의지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너희는 적게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는 창조주 하나님인 나 자신에 관해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순수한 진리가 전해져야만 한다.

잘못 된 가르침은 너희들 축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잘못 된 가르침을 명백하게 잘못 된 것으로 확정 지어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잘못 된 가르침은 너희들 어두운 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너희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녀에게서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사랑이 우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 심장 안에 나에게 대한 두려움을 심는 내 대적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나와 내 성품에 관한 진리를 전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살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아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B.D. No. 4484

1948년 11월 11일

너희는 너희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세상적인 관계에서 삶이 너희가 이성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너희는 주저하지 않고 이런 강요에 순응한다. 너희가 접촉하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너희가 연구하고 고민하여 이성적으로 세상 지식을 증가시키는 일은 너희에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이 동인이 되어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이성을 적게 사용하거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너희는 영적인 지식이 외부로부터 너희에게 실제 전해지게 하고, 너희 이성을 활용하지 않고, 전해진 것을 확인하거나 생각해보지 않고 받아들인다.

너희는 이성을 가지고 전해진 것을 점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성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여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가 받은 영적인 내용을 점검하지 않고 영접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이성을 준 분이 또한 너희가 이성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류 가운데 살고 있다. 왜냐면 그들이 분별해야 할 가르침에 대해 분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제공된 형태로는 가르침을 단순히 받아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가르침으로 모든 점검하는 일을 거부하지만, 단지 너희의 이성으로 점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너희가 옳다. 그러나 가장 힘든 질문을 진리에 합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영을 통한 깨우침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원을 절대로 보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항상 또 다시 거론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단지 이성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 사람이 자신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느낄수록, 그가 하나님께 지원을 구하는 일이 더욱 더 필요하다.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람이 진리로 대변하기 원하는 내용에 대해 그 자신이 또한 전적으로 모두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영의 어두움 속으로 빛을 주는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 땅으로 전해진다. 진리를 거부하거나 가리는 곳은,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진리로 대변하는 곳은 어둡다. 이 어두움을 빛으로 물리쳐야 한다. 진리가 거짓과 오류를 물리쳐야 하고, 사람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은 곳이 드러나야 한다. 왜냐면 진리가 단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고, 진리가 단지 신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의 원수에 의해 혼란스럽게 되고, 사람들 가운데 영접을 받은 완전히 변개된 가르침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영접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성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제공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가르침을 점검하지 않고 받아드렸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다시 말해 이 가르침은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이는 영원한 신성에 대한 설명이고, 모순이 되기 때문에 받아드릴 수 없다. 즉 사람이 이 가르침을 받아드리면, 그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사람이 그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는 이 가르침을 인정할 수 없다.

(1948년 11월 12일) 영원한 선성을 한정된 형체 안으로 끌어드리려는 일은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불완전하다는 증거이다. 모든 형체는 좁은 제한된 개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제한이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어떤 아주 온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또한 최고로 온전한 존재는 나뉘어질 수 없다. 왜냐면 온전함은 영적인 상태이고, 영적인 존재는 절대로 셋으로 나뉘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인격을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그런 개념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관점을 갖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세가지의 개념이 세분의 인격체가 영원한 신성으로 하나가 된다는, 즉 셋이서 하나의 하나님을 이룬다는 가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랑으로서 "아버지", 지혜로서 "아들", 힘으로서 "영"을 설명한다면, 이런 삼위일체 용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수 있고, 이는 또한 하나님이 삼위 일체라는

가르침의 근거로써 유일하게 올바른 설명이다. 그렇지라도 삼위일체를 잘못되게 해석함으로 인한 오해가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게 했다.

하나님의 본질의 부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을 절대로 인격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개념에 따라 한 형체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은 아주 강한 사랑의 의지에 의해 인도받고 사용되는 끝없이 총만한 빛과 힘이다. 빛은 하나님이다. 힘은 하나님이다. 사랑하려는 의지는 하나님이다.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없다. 모든 신적인 것이 삼위일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모든 신적인 것에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존재에 내재되어 온전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그러나 모든 신적인 것은 항상 하나의 존재이고 형체가 없는 어떤 무한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존재하기 위해 어떤 형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떤 형체가 소멸되지 않고 총만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미리 영화시키지 않았다면, 모든 형체는 파괴가 될 것이다.

그런 형체가 인간 예수이다. 인간 예수는 상상할 수 있는 신성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이로써 사람들이 최고로 온전한 존재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총만함으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최고로 온전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피조물들과 연관이 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형체는 단지 세상적이고, 사람들이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 왜냐면 영은 볼 수 있게 되기 위해 형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셋의 분리된 존재는 비록 하나라는 언급을 하지만 오류로 인도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세 존재를 개별적으로 불러, 이로써 세 존재라는 의식을 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모든 세상적인 영적인 위험 가운데 유일하게 도움을 청해야 할 한 하나님이라는 진리에 합당한 느낌을 잃게 하면서 분리시킬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든 총만함으로 영접하기 위해 이 땅에서 개인으로 삶을 산 예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음을 그의 승천이 증거하고 있다. 왜냐면 육체가 완전히 영화되어, 모든 입자들이 영원한 신성과 합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온전하게 존재하는 두 존재라고 할 수 없고 한 신성이다. (1948년 11월 12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최고로 온전한 상태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모든 무한을 채우고, 하나님의 의지가 정한 모든 일을 실행에 옮기는 하나님의 영은 단지 하나의 신성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표현되는 개념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이다. 아들의 지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기로 정한 모든 것을 채우는 힘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아주 지혜가 있고 사랑이 총만하다. 이런 개념은 더 이해하기 쉽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삼위 일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단지 이런 간단한 해결책을 파악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이 영적인 눈이 멀었고, 자신을 가르치도록 허용하지 않는 인도자들에 의해 잘못 인도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들은 믿어야 한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가 믿게 요구받는 모든 것에 대해 그는 생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이를 거절할지 또는 영접할지 자신의 심장이 정하게 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의지에 강요하는 것이다.

반면에 나는 사람들의 의지를 전적으로 자유롭게 놔둔다. 너희는 항상 사람들의 의지의 자유를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한 가르침이 나로부터 왔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 의해 너희 사람들이 전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의해 너희 사람들에게 신적인 사랑의 계명 외에는 어떠한 계명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도 자유의지를 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내 말을 전한다. 나는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영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너희가 이를 믿을지 또는 안 믿을지는 너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이에 대해 입장을 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에 관해 생각해야만 하고 올바른 것을 깨닫고 영접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나는 너희가 내 말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지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판단하기 전에 분별해보기를 요구한다. 진지하게 점검을 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제공된 것이 진리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하지 않고 그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 깨달아야만 하는 영적인 내용을 영접하고 이를 굳게 붙잡는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내가 말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이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 일을 올바르지 못한 일로 여긴다. 왜냐면 그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모든 사람이 나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능력을 사용하는가? 왜 그들은 세상적인 재물의 가치를 평가해 보면서 영적인 내용은 평가하지 않는가?

왜 자신에게 진리가 제공되었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지 염려하며 질문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혼의 구원에 적은 의미를 두는가? 그들은 왜 진리에 무관심해 하는가? 왜냐면 진실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무관심한 상태는 생각할 것 없이 시험해 보지 않고 모든 영적인 내용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왜냐면 특정한 근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고 바로 이런 근원을 내가 열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그들이 이에 관해 입장을 정하면, 그들이 진리로서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접하고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로 몰아붙이고 어두움 가운데 머물게 하기 원하는 내 대적자의 권세를 강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는 진실로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너희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 한 조직에게 양도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는 자유하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정하게 맡긴다. 너희가 모든 진지함으로 나를 구하면, 나는 나를 찾게 하고 너희에게 내 대적자의 역사를 흰히 드러나게 할 밝은 빛을 비춘다.

단지 빛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런 빛 가운데 설 수 있다. 이를 위해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진지한 의지가 요구되고 나와 연결이 요구 된다. 너희에게 믿게 정해 주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는 너희는 실제로 나에게 향할지 질문해야 한다.

이런 나와 긴밀한 관계를 구한 어떤 사람도 빈손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이런 모든 사람에게 나를 계시하고 그에게 계속되는 길을 밝혀 주는 빛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나를 구하면, 그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선물해줄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류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지 않을 것이다. 나와 연결이 그를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한번 빛이 비춰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들의 빛을 향한 갈망이 단지 증가 되는 사람들을 어두움 가운데 묶어 두는 일이 대적자에게 불가능 할 것이다.

스스로 진리 안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전달할 수 없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절대로 내 뜻에 합당할 수 없는 영적인 강요를 행사하며 이 땅에서 내 올바른 대리자로 자신을 위장 하는 사람들의 영향으로부터 그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이 모든 편에서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사람의 자유의지의 결정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 하는 것이 진리를 얻는 것을 보장한다.

B.D. No. 7629

1960년 6월 22일

진리를 받기 위해 단지 진리를 향한 진지한 의지만을 가져야 함을 이해하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한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러나 단지 이런 진지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희귀하다. 이런 주장은 사람들이 진리를 향한 갈망이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 울어 나와야만 한다는 것과 이 갈망을 사람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게 돼야만 함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는 발언이다.

그에게 오류에 빠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는 심장으로 나에게 나와서 진리를 전해주기 의뢰해야만 한다. 그는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제 진지하게 진리인지 시험해보지 않고 진리를 받아 들이고 이를 굳게 붙잡으면, 그리고 진리가 그의 지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은 어렵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지식을 버리고 순수한 진리로 바꾸는데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에게 진리를 향한 내적인 갈망이 없다. 그는 그에게 진리를 점검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나와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나에게 영을 일깨워주길, 이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기, 나에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수한 진리를 이 땅에 전하는 일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많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는 영적인 내용들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내용이 영의

나라로부터 왔다면, 이 때문에 사람이 확실하게 진리를 받았다고 믿으면, 특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진리를 전달받기 위한 선행조건이 진리를 진지하게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나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항상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이 진리라는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점검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점검은 나와 함께 내 도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왜냐면 영의 나라에서도 아직 어두움에 속한 존재들이 또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그들이 이 땅에서 받아들인 잘못 된 지식을 붙잡고 저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행했던 것처럼 열심히 대변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그는 저세상에서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성장 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면 이런 혼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까지 결국 진리를 영접하기 시작할 때까지 영원하고도 영원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은 만약에 그들이 잘못 된 지식을 생각을 통해 전하는 일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는 의식적으로 이 땅과 저세상과의 연결을 구하는 영매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잘못 된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자원하는 사람을 찾으면, 저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역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연결은 단지 진지한 진리를 향한 갈망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가 항상 내 영을 통한 지원을 구하면, 축복이 될 수 있고 축복될 것이다. 그러면 위험이 없다. 그러면 사람 스스로 깨달음이 없는 존재가 넘어 들어올 수 없는 성벽을 스스로 세운 것이다. 진실로 단지 나로부터 온 진리를 전해 줄 빛의 나라만이 그에게 접근할 수 있다. 왜냐면 빛의 세계는 내 사명대로 역사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순수한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일이 내 뜻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진리를 향한 갈망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는 일을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해야 한다. 그는 오류를 두려워하고 항상 나에게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그가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가 진리를 받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 안에 너희를 오류로부터 잘못 된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제공 된 것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진리를 향한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항상 너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 것이다.

왜냐면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능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와 함께 동시에 그에게 이런 능력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인 내용의 사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 자신이 진리이다. 나 자신이 내 피조물과 연결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피조물들이 진리 안에 서길 원한다.

나는 오류를 전하려고 시도하는 자신을 빛의 존재로 가장해 너희를 속이려고 하고 오류에 빠지게 하려는 존재의 영향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나와서 긴밀한 연결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르침을 보장한다. 이런 연결이 너희에게 영을 통해 진리가 전해지는 일을 보장한다. 왜냐면 너희 안의 영의 불씨가 내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영의 불씨가 진실로 너희를 올바르게 가르칠 것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 영으로부터 스스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추구해야 한다. 너희가 영매를 통해 제공하는 존재의 영의 상태를

제어할 수 없는 영의 나라로부터 온 내용을 너희가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길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는 존재들의 역사에 큰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도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함을 너희가 알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리를 전해줄 줄을 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 거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진리를 통해 유일하게 나에게 그러므로 축복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B.D. No. 7797

1961년 1월 14일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성공시키려면,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하면,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되기 원하면,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나로부터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생성되어 나왔다. 너희는 내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빛과 능력이 충만했다.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계속하여 연결이 된 가운데 있어 너희가 쉬지 않고 나로부터 빛과 능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할 수 없이 축복 되었다. 그러나 너희의 온전한 성품에 자유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신적인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자유의지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줘야만 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처럼 온전하게 남거나 또는 너희의 성품을 반대로 바꾸어 너희의 온전함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록 너희의 의지가 전적으로 자유 할지라도 내 뜻과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하고 내 뜻 안에 서게 하는 일을 통해 너희의 신적인 요소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반대되는 처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자유의지의 증거로서 너희의 의지가 나와 내 의지에 반대라면, 나를 떠나 타락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나는 나에게 속한 나에게 의해 창조된 존재들에게 더욱 큰 축복을 줄 수 있기 위해 이런 의지의 결정을 요구했다.

나는 이런 의지의 결정을 먼저 나에게 의해 창조된 내 아주 큰 사랑이 영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게 내 형상으로 생성되어 나오게 한 빛의 영에게 요구했다. 그는 최고로 온전하게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그는 내 형상이었다. 그러나 그와 나 사이에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 그는 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반면에 나는 힘의 원천 자체였다. 그도 이를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는 최고의 깨달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의지의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이 시험은 그가 항상 능력을 제공 받은 나 자신을 힘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내 능력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모두가 최고로 온전한 그들의 신적인 요소를 증명해주는 모든 은사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생성되게 되었다.

이런 모든 존재들을 생성했다는 의식이 첫 번째로 창조된 영인 빛의 전달자를 거만하게 했다. 그의 거만 가운데 나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그는 의지의 시험에 합격하기 못했고 자신의

의지로 나와 결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결별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존재들이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존재들은 나와 내 능력의 제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나를 떠나는 일을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가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는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큰 수의 존재들을 자신에게 이끌고 갔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결정해야 했고 나를 떠났다.

영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의 길로써 그들을 다시 출처도 인도하기 위해 나에게 다시 인도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가장 다양한 종류의 창조물들을 창조한 원인이다. 왜냐면 존재가 나와 다시 연합이 되면, 비로소 다시 축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와서의 간격은 가장 큰 불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지식을 너희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너희는 나에게 귀환하는 과정 중에 있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고 이미 목표 직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한때 가졌던 온전한 성품을 반대로 바꿨다. 너희는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너희는 인간으로써 아직 온전하지 못한 피조물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 뜻을 성취시키면, 너희가 내 신적인 질서의 법칙에 복종하면,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고 너희의 성품을 다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전적으로 사랑으로 바꾸면,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사랑이 너희를 다시 나와 연합이 되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사랑을 나로부터 자유의지로 받아야만 한다.

내 사랑이 너희에게 다시 비추어 주기를 원하면, 너희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성취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해야만 한다. 이 과제는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다시 나에게 향하게 하는 일이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리는 일이고 사랑으로 나에게 달려오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깊은 지식이 제공될 것이다. 빛이 없는 상태가 너희에게 사라진다. 너희는 밝은 깨달음을 얻는다. 너희는 모든 연관 관계를 이해한다. 너희는 불행한 상태를 벗어난다. 너희는 나와 연결을 이루고 이런 연결 가운데 너희가 한때 가졌지만 자유의지로 버렸던, 나로부터 한때 빛이나는 나 자신의 형상으로 생성되었고 최종적으로 다시 내 형상이 되어 할 모든 존재들이 소유했던 축복을 찾는다. 왜냐면 내가 창조하였을 때 내 목표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나와 함께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는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이 것으로 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역사.

B.D. No. 7781

1960년 12월 26일

나에게 귀환은 내 구속역사에 의해 보장되었고 언젠가 모든 영적인 존재가 다시 내 곁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언젠가 한때 나에게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가 원래 초기와 같이 다시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십자가의 내 죽음으로 깊은 곳에서 높은 곳에 도달하는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과 축복의 나라에 도달하는 다리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내 죽음을 통해 깊은 곳까지 내 대적자를 따른 모든 존재를 나로부터 분리시킨 아주 큰 죄가 해결됐다.

내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사람들과 나 사이에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고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갈라진 틈이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너무 연약했기 때문이고 죄짐이 그들을 바닥으로 짓눌렀고 또한 내 대적자가 간격을 메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의 죄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비로소 큰 죄를 해결하면서 다리를 세웠다.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인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속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고 단지 나에게 매달리고 더 이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하기를 원하는 일이 이제 가능해졌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죄의 완전한 용서를 받고 빛의 나라의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일이 이제 가능해졌다.

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곤경 가운데 홀로 두지 않고 그들을 도왔고 한 사람의 곁형체 안에 거하면서 이제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 왜냐면 내가 깊은 곳에서 다시 위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내 삶은 사랑의 삶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왜냐면 사랑이 단지 구원하기 때문이고 사랑은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기 때문이고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은 나 자체가 사랑인 나와 다시 합일할 수 있기 위해 돌이킬 수 없게 자신의 본성을 사랑으로 바꿔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했을 때 빛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다리를 세웠다.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의 잘못으로 도달할 수 없었던 나에게 다시 도달하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만 한다. 그러나 내 사랑이 너희의 죄보다 더 크고 내 사랑이 빠져나갈 길을 찾았고 내 사랑이 너희가 중단시킨 너희와 나 사이의 연결을 다시 이루려고 시도했다. (1960년 12월 26일) 그래서 나는 한 길을 찾았고 이 길은 내 사랑 자신이 죄를 해결하고 너희에게 나에게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다.

빛의 나라와 이 땅의 연결이 이제 만들어졌다. 왜냐면 빛의 혼이 이 땅에 임했고 내가 그 안에 육신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혼이 육신을 입었고 인간 예수가 태어났고 그가 이제 너희 모든 사람이 뒤따라 갈 수 있고 빛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고 너희가 나에게 귀환하는 일을 완성하는 길을 갔다. 내 사랑이 너희를 위해 이 다리를 세웠다. 왜냐면 내 사랑이 곁형체를 입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 사랑이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한 측량할 수 없는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 죄가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을 만들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무한하고 이 사랑은 내 피조물인 너희를 다시 되찾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공의가 너희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들이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빛을 갠 일을 맡았다. 한 사람이 너희를 위해 속죄제물을 드렸고 이 사람 안에 나 자신이 거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즉 너희가 다시 나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너희가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빛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그곳에서 원래 초기처럼 빛 가운데 힘과 자유를 가지고 다시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가 나에게 가는 길이 자유롭게 되었고 십자가 아래 너희의 죄를 버릴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너희의 구세주인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자신을 의탁할 수 있었고 예수가 이제 너희에게 빛의 나라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런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갑자기 다시 빛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를 자녀로 양육하려는 내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고 자유의지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만 하고 자유의지로 너희의 구원을 갈망해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나아와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이 땅으로 내려온 너희의 아버지의 기뻐하는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영들을 분별하라.

B.D. No. 8228

1962년 7월 30일

너희 사람들은 내가 진리에 합당하게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세주로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을 성취하였는지 너희에게 증명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이 내 영을 통해 너희에게 그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너희는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너희에게 계시를 해주기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침착하게 영들을 평가해볼 수 있다. 왜냐면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설명하면, 이 영은 너희에게 단지 순수한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내용의 출처를 시험해볼 수 있는 권리가 너희에게 있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시험석을 보여주었다. 왜냐면 대적하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임했다는 것을" 절대로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증거를 갖게 되었다면 그러면 너희는 이 영이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것을 영접할 수 있다.

내 말이 전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사람 안의 내 역사를 그 사람 자신의 이성의 생각이라고 해명하거나 설명을 할 수 없다. 이를 단지 내 대적자 역사라고 더욱 여길 수 없다. 사람들이 이를 내 대적자의 역사로 여기면 사람들 스스로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지 못함을 단지 증명해주는 것이고 그들이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 자기 생각을 많이 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자신들의 아버지인 나로부터 음성을 듣는 느낌을 느꼈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의 심장에 내 말이 전해지는 것은 이 일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건 내 일꾼을 통해 일어나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말은 사람들이 단지 자신을 열고 내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가 되었으면, 선입관이 없이 내가 말을 하게 허용을 하면, 즉 자기 자신에게 내 영이 내 사랑의 빛이 비추어 지게 허용을 하면, 그들의 심장에 감동을 준다.

그러나 사람이 순수하게 이성적으로만 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영적인 내용을 시험해보려고 하면, 그는 아버지의 음성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음성이 유일하게 아버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의 심장에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너희가 내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에게 내 계시가 전해지면, 그리고 너희가 나 자신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면, 너희는 절대로 거부하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내 말이 너희들로 하여금 더 이상 내 말을 잃기를 원하지 않게 감동을 줄 것이고 너희는 내 말들이 진리라는 전적인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나 자신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과 그의 구속사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에게 항상 가장 분명한 진리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대적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구속사역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했다는 깨달음을 너희 사람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너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절대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너희에게 절대로 내 계시의 내용인 사랑을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사랑이 너희를 나와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단지 미움이고 너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그의 속성을 너희는 알아야만 한다. 그가 신적인 계시에 대해 험담하고 너희의 영을 어둡게 해서 너희가 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 그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영이 밝아지게 하기 위해 단지 나 자신에게 의뢰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영이 밝아 지기를 진지하게 원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 안의 모든 선명하지 못한 것을 가장 밝은 깨달음으로 바꿔 줄 것이다.

내 대적자는 항상 단지 혼동을 불러 일으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는 순수한 진리를 향한 소원이 아직 지배적이지 않은 곳에서만 단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소원이 있는 곳에서는 그는 모든 권세를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빛을 비추이기 때문이다. 이 빛은 빛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감동을 줄 것이다.

아멘

영의 역사에 대한 이해.

B.D. No. 8254

1962년 8월 27일

내가 택한 도구를 통해 너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식은 영원한 진리로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진리여야만 한다.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이 지식이 내 편에서 오는 직접적인 계시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영역의 영적인 내용을 전하는 과정은 특별한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능력은 사람이 절대로 훈련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내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영과 계속하여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안의 영이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편에서 주는 계시이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성을 통해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내용은 자주 의심을 받는다.

왜냐면 사람들이 아직 깨어난 영으로 있지 못한 동안에는 그는 이런 나 자신을 증명해 주는 영의 역사를 내가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계시해주는 영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영원한 진리 자체가 진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 단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인지 영적인 내용을 시험해 보는 것은 너희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절대로 영적인 지식은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내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그는 어떤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지가 않다. 그는 이웃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다. 그는 내면의 가르침을 통해 밝은 빛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 전해진 지식을 진리로서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진리를 이 땅에 전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해주고 영적인 영역의 해당이 되는 세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거나 증명할 수 없는 그러므로 믿어야만 하고 이 계시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발산하며 선명한 깨달음과 광범위한 지식을 주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의 관점을 논쟁하면, 그들은 오류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왜냐면 인간의 이성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대적자의 역사로 인해 오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전적인 확신이 부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기를 원한다.

왜냐면 그들이 단지 진리를 통해 축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전하는 일은 단지 자유의지로 그릇으로써 나를 섬기는 내가 그 안에 내가 내 영을 흘려 줄 수 있는 이 땅의 자녀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너희 사람들은 영원한 진리 자신이 너희에게 말함을 너희가 내 영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광범위한 지식을 너희에게 전함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계시해 준다는 것을 항상 또 다시 의심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이고 그들 스스로 아직 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이고 그러므로 아직 어두운 영으로 있다는 증거이다. 내 대적자는 그들이 나를 깨닫지 못해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지 못하게 그들을 영의 어두움 가운데 두며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라도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진리가 필요한 지를 안다. 사람들을 모든 진리 안에서 가르치는 그들에게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설명해주는 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사람들이 받지 않는 동안에는 잘못 된 길을 간다는 것을 안다. 내가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 준다.

나는 그들이 진리의 합당한 지식을 통해 밤의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낮의 밝음으로 나올 수 있게 그들에게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전한다. 진리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나에게 진리를 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의 자유의지가 역사해야만 하고 진리를 갈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도 나 자신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리를 진지하게 갈망하는 어떤 사람도 놓치지 않고 진리를 진지하게 갈망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진리를 감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빛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진리의 무관심하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어둠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진실로 나 자신이 그들에게 비추어주는 길을 올바른 목표로 인도하는 길을 찾았을 것이다.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 그들은 나 자신이 나를 계시하면, 이를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단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순수한 진리는 외에는 어떤 것도 너희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음을 알 것이다.

아멘

생명력이 있는 믿음. 생명으로 깨어남.

B.D. No. 7597

1960년 5월 8일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면, 그가 자신의 위의 존재를 인정하면, 이로써 그가 이 존재를 믿고 그와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하면, 다시 말해 높은 존재와 자신과의 연관관계를 느끼고 이런 연관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길 원하면, 올바른 삶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그 안에 영의 불씨가 생명으로 깨어난다. 영의 불씨는 내면으로부터 영원한 아버지의 영에게 향하게 그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이 사람의 내면의 사랑의 불씨는 불타올랐다. 그러므로 그는 초기에는 단지 자신의 이웃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지만 항상 내면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재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항상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 생명이 이제 자신을 나타낸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안의 영의 불씨가 잠자고 있을지라도 즉 영적으로 죽었을지라도 체험하는 육신의 삶과 상관이 없는 그 안의 두번째 삶이다.

그러나 이런 두번째 삶이 사람들에게 비로소 올바른 만족을 준다. 왜냐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을 더 이상 잊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를 붙잡고 그가 다시 죽음에 빠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높은 존재를 생명력 있게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일과 구별해야 한다. 왜냐면 교육을 받아 배운 것은 다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식을 나중에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식이 아직 혼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지식은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자신 안에 깨어난 생명을 더 이상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생명은 사람이 생각할 능력이 있게 된 후에 깨어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의 생각은 올바른 인도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연결을 그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존재와 연결을 구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인

도자와 보호자가 필요함을 느낀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연약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를 구한다.

초기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다가 그가 이런 존재를 믿을 수 있게 되고 그와 연결을 이루면, 그는 행복하다. 이런 믿음은 모든 자녀가 얻을 수 있는 단순하고 꾸밈이 없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고 자녀가 실제 가르침을 통해 영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적인 확신을 주지 않는 믿음이 아니다.

왜냐면 이런 확신을 갖는데 자신 안의 영의 불씨를 생명에 도달하게 하는 자녀의 사랑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모든 것은 이제 이 영의 불씨가 인도한다. 영의 불씨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의식적인 내적인 기도를 통해 연결을 이룰 때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아버지의 영을 갈망하게 항상 또 다시 자극한다.

이런 내적인 기도는 이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영접하게 하고 영의 눈이 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절대로 다시 빠지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믿음의 가르침이 거절당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생명을 선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이 비로소 올바른 생명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면 사랑이 비로소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가르침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자녀는 자신을 찾게 허용하는 아버지를 비로소 구한다. 그러면 사람 안의 영의 불씨가 그로 하여금 계속하여 더욱 아버지의 영에 가까이 가게 한다. 그러는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그와 연결되려는 재촉을 받는다. 그는 내면으로부터 사랑을 행하라는 기도하라는 자극을 받는다.

사랑을 행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사람들을 비로소 영원히 지속되는 그가 더 이상 잃을 수 없는 생명으로 깨어나게 한다. 왜냐면 이 생명은 이 땅의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을 찾았고 자녀는 아버지를 찾았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영원히 복종한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죽을 수 없고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이 땅의 삶이 헛되게 되는 일.

B.D. No. 7533

1960년 2월 27일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인식하는 가운데 너희의 이 땅의 삶을 가운데 들어선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한 깨달음에 서서히 도달하고 먼저 너희가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르침은 단지 너희 육체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고 너희가 영적인 삶을 깨닫기까지 너희가 혼을 생각하고 혼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기까지 자주 오래 걸린다.

너희가 이제 알맞은 때에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으면, 다시 말해 너희의 관점이 너희의 영적 성장으로 향하면, 너희 혼은 영적성장에 대한 자세를 가지게 되고 소원을 가지고 영적성장을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해 순전히 육체적인 삶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고 혼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육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단지 육체에 필요한 것만을 제공하고 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적은 성공을 할 것이다.

그가 단지 육체의 행복에만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전까지의 삶은 단지 헛바퀴를 돌린 것이고 사람의 혼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헛된 삶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에 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가 단지 이런 설명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혼은 아주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사람이 세상적인 추구가 무가치함을 볼 수 있기 시작하기까지 다른 영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가 어디로 향할 지를 그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나 가르침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 그가 깨닫는데 도움이 될지 그에게 전해진 지식으로부터 자신이 유익을 얻게 할지는 그에게 달려 있다.

그는 자유의지로 깨달음을 얻어야만 한다. 그는 단지 단순하게 올바른 삶의 목적을 성취되길 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스스로 자신 위에 있는 것으로 깨닫는 권세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게 이제 그의 이 땅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에게 이성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는 생각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위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논의해볼 수 있다. 그러면 그는 결정할 수 있고 그의 결정에 그가 단지 세상적인 삶을 살지 영적인 추구를 할 것인지가 달려 있다. 비록 그가 올바르게 생각할 지는 이제 그의 의지에 달려 있을지라도 그러나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 항상 주어진다.

그는 도움이 없이 홀로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길을 찾고 이 길을 가는 일이 그에게 항상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 땅의 삶은 헛되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그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의지가 결정적이다. 왜냐면 의지는 자유롭고 어느 방향을 정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행해 그의 의지를 인도하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그러면 그에게 모든 도움을 주어 사람이 올바른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뜻: 사랑의 계명의 성취.

B.D. No. 4932

1950년 7월 12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에서 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계명 안에 너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일이 들어 있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온전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없고, 옛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 옛 죄는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를 떠난 일이다. 즉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이로써 나에게서 나온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을 거부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나와 다시 연합하는 일을 의미하고, 너희가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이로써 너희가 한때 가졌던 빛과 힘을 다시 가진 존재가 되고, 전적인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의지로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너

희가 이제 다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너희가 원래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다시 신적인 존재로 형성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먼저 내 뜻을 알아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가 축복되기 위해 내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어 한다. 내 뜻이 너희에게 알려져야만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선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내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내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내 말씀은 너희에게 나의 사랑의 계명을 알려주고, 나와 이웃 사람을 향한 모든 의무를 알려준다. 너희가 처한 나와 의 간격을 스스로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이 간격을 알려준다. 내 말씀은 너희가 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내 지혜와 전능함을 깨닫게 한다. 이로써 너희가 단지 사랑을 행하려는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의 불씨에 불이 붙게 한다.

내 말씀은 또한 너희의 이웃을 나의 자녀로 너희에게 소개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너희가 이웃을 형제처럼 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내 말씀은 너희에게 경고하고 훈계하고 내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잘못된 삶의 방식과 사랑 없는 삶의 결과에 너희가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너희가 축복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내 말씀을 받아드려야만 한다. 그러나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어떤 형태로 도달하게 될지는 내 걱정이 되게 하고, 너희는 단지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제공할 때 자원하여 영접하라. 왜냐면 너희는 단지 내 말씀을 통해 내 뜻을 알 수 있고, 단지 내 뜻을 성취시킴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